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WEET CARESS

가제 : 달콤한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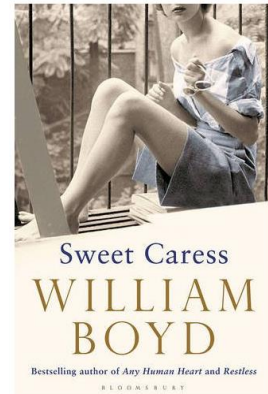
저자 : William Boyd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5년 9월 15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소설



전쟁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여류작가의 일대기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로부터 10년 앞서 태어난 에이모리 클레이.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난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성별 구분이 애매한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에이모리는 남들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가만히 두는 아이가 아니었다. 어엿한 여성으로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긋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카메라를 손에 쥐게 된 날부터, 그 누구와도 다른 색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예술가가 되었다.

아버지는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집을 떠났고, 에이모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는 정서적인 유대를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그레빌 삼촌이었다. 사진사인 삼촌은 에이모리에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선물한 사람이기도 했고, 기본적인 촬영 기술도 가르쳐 주었다. 카메라와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열정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숙학교에 잠깐 다니다가 그만둔 에이모리는 런던에서 일하던 삼촌의 견습생으로 일한다. 좁디 좁은 방에 살면서 일주일에 2 파운드를 받으며 <보몽드>지에 실릴 유명인사들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사진은 재미있었지만, 에이모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삶과 사랑, 예술가적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해 에이모리는 홀로 길을 나선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누구와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열정과 매력이 가득한 어느 여성의 삶
런던과 뉴욕, 보도 사진과 패션 사진, 전쟁이라는 복잡한 시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아간 에이모리에게는 인생을 겁내지 않는 여자, 열정 넘치는 삶의 여행자

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20대 후반에는 독일 바이마르 지역의 화류계에도 직접 들어가보고 30대에는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한창 부산하던 뉴욕에서 생활하며 사진을 남겼다. 그러다 흑서초당의 반란이 뜨거웠던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로 건너가 최초의 여성 전쟁사진가가 되었다. 연합군과 함께 라인란트로 이동한 후, 정치적 분쟁이 한창이던 전후 베트남으로 건너가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했다. 무엇이든 경험해보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에이모리는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내면의 고통과 싸워나갔다.

개성 넘치고, 자유롭고, 매력적인 여류 사진작가를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 두 차례 전쟁을 치러낸 유럽 대륙 곳곳의 모습들을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듯, 새로운 시선으로 전하는 소설이다.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던 에이모리를 통해 평범한 여성이기를 거부했던 그녀의 독특한 일생과 그녀를 둘러싼 방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윌리엄 보이드(William Boyd)는 런던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로 《A Good Man in Africa》 등 1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휘트브레드 상(Whitbread Award)’을 비롯해 ‘서머싯 몸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NEW NEIGHBOR

가제 : 새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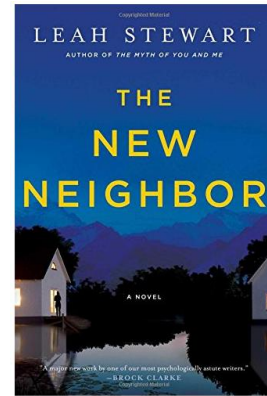
저자 : Leah Stewart

출판사: Touchstone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산속 호숫가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괴팍한 90세 할머니, 건너편 집에 새로 이사온 수상한 여자
낯선 사람을 향한 호기심, 그 호기심이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서 집착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은둔에 가까운 외로운 삶을 살던 사람의 곁에 역시나 베일에 싸인 듯 뭔가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 상대방의 비밀을 꼭 알아내고 싶다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테네시 주, 산 정상과 가까운 외진 곳에 있는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90세 노인 마거릿 라일리. 그녀는 엄격한 금욕주의자로 외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미스터리 소설만 탐독하며 고독함을 달랜다. 그런데 집 바로 앞 호수 건너편에,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던 이웃집에 어느 날 인기척이 느껴진다. 새로운 이웃이 생긴 것이다.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마냥 기쁘지는 않지만 속으로 놀라움을 느낀다.

마거릿의 새 이웃은 네 살짜리 어린 아들을 키우는 젊은 여성이었다. 자신을 제니퍼 영이라고 소개한 그녀도 마거릿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 그 조용한 마을을 찾아왔다. 마거릿에게 제니퍼는 혼자 있고 싶지만 지독하게 시달리던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친구이자, 동시에 왠지 꼭 풀고 싶은 미스터리였다. ‘어떤 과거로부터 도망친 여자일까?’ 마거릿의 궁금증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제니퍼가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제니퍼는 자신과 아들, 남편에 관한 이야기나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

마거릿의 시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거릿 역시 비밀을 간직한 채 긴 세월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마거릿은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장병들과 함께 서유럽 전역을 이동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다. 그녀 곁에는 동료 간호사이자 소울메이트였던 케이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케이는 세상을 떠났고, 친구의 죽음에 관한 비밀은 마거릿으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가장 아끼던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과 멀어져야 했던 두 사람의 줄다리기

제니퍼는 아들 마일로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운명이라 여기며 평생 사랑한 남자, 토미에 대해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내비친다. 그리고 지독한 술주정뱅이였던 토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니퍼는 힘겹게 새로 시작한 현재의 생활이 모두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마사지 치료사인 제니퍼는 직업의 특성상 상대방의 근육을 만지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즉각 알아채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어느 날, 한결 가까워진 마거릿을 마사지하던 중 자연스레 이 여인이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는 의도를 눈치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지만,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긴 비밀을 철저히 숨긴 채 서로를 대하고 그래서 절대 진심 어린 친구로 발전하지 못한다. 가끔 홀로 우두커니 호수를 바라보며, 주머니에 가득 쑤셔 넣은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대로 호수에 뛰어 들어 자살하면 어떨까, 고민하던 마거릿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외로움에 질려가던 참이었고, 그 때 구원의 손길처럼 나타난 제니퍼는 그녀가 늘 탐독하던 추리소설 속 인물들처럼,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은 인물로 비춰졌다. 제니퍼에게 마사지를 받고, 2차 대전 당시의 기억과 케이와의 불행했던 인연을 대신 기록해줄 작가로 그녀를 고용한 마거릿은 제니퍼가 숨긴 진실을 찾고 싶다는 욕망으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만 넘어서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제니퍼의 새로운 삶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다.

두 인물을 치밀하고 세세한 관찰한 듯한 묘사,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소설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두 여성의 독특한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아 스튜어트(Leah Stewart)는 소설가로 《The History of Us》, 《Husband and Wife》, 《The Myth of You and Me》, 《Body of a Girl》 등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신시네티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HE ONE THAT GOT AWAY

가제 : 도망친 한 명

저자 : Simon Wood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5년 3월 1일

분량 : 294 페이지

장르 : 소설



잠깐의 여행이 평생의 고통으로 돌변한 순간, 잔혹한 살인마에게 납치된 두 여성의 엇갈린 운명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서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두 친구 조와 홀리는 잠깐 쉬면서 재충전하려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차를 몰고 떠난 여행에서 두 사람은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조는 홀리의 끔찍한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이 들어 보니 웬 헛간에 나체로 손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홀리는 바로 옆 방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끌려왔는지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먹을 것을 사러 차에서 잠깐 내린 것까지가 남아 있는 기억의 전부일 뿐, 머릿속은 하얀 백지가 된 것 같다. 일단 죽어라 비명을 질러대는 홀리를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한 조. 묶인 손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던 조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묶여있던 매듭을 푼다.

미친 듯이 헛간에서 빠져 나왔지만 혼자서는 홀리를 구해낼 방도가 없다. 우왕좌왕하던 조는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홀로 도망친다. 그러나 납치범이 미리 먹여둔 약 때문에, 조는 마침내 도움을 청할 사람들을 만났지만 두고 온 친구가 있는 장소도, 납치범의 인상착의도 또렷하게 기억해내지 못한다. 방금 도망쳐 온 곳도,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도망쳐왔는지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작은 시골 마을의 경찰들은 납치를 당했다는 조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의도치 않았지만 조는 홀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5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박사 학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고,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 속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며 쇼핑몰 보안요원으로 살아간다. 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열심히 배운 무술 덕이었다. 그러나 친구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조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조는 체력도 키우고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스스로를 자꾸 위험한 상황에 내던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1년 전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남긴 상처에서 비롯된 비정상적 행동들이었다.

도망친 희생자를 다시 찾아온 소시오패스 살인자, 그의 집요한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

그런데 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과거에 당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조는 그 살해 현장을 본 순간, 자신과 홀리를 데려간 남자와 동일한 인물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같은 사람의 짓이었다. 조는 경찰 수사를 돕기로 하고, 사건을 해결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홀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그 끔찍한 범인이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이 용감한 시도가 또 다시 자신을 엄청난 위험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한편, 두 친구를 납치했던 남자는 소름 끼치게 잔혹한 소시오패스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는 조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어쩌다 도망친 먹잇감으로 여기며 때를 기다릴 뿐이다. 우연히 TV 화면에 아주 잠깐 등장한 조를 보고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대번에 알아낸 이 집요한 범인은, 다시 조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 조금씩 그녀 가까이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살인사건 조사를 돕던 조 역시, 자신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났음을 직감한다. 조는 다시 한 번 그의 치밀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약해 보이지만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조와 가학적 사이코패스 살인자의 대결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이먼 우드(Simon Wood)는 레이싱용 자동차를 몰다가 비행기 조종사로, 다시 동물 구조 전문가로, 민간 탐정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소설가로 《Accidents Waiting to Happen》, 《Paying the Piper》, 《Terminated, Hot Seat》, 《We All Fall Down》, 《No Show》 등 150편이 넘는 소설과 글을 발표했다. 여러 잡지를 통해 소개된 미스터리 소설들로 ‘앤소니 상(Anthony Award)’을 수상하고 ‘CWA 대거 상(CWA Dagger Award)’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제목 : THE HEART OF THE ORDER

가제 : 타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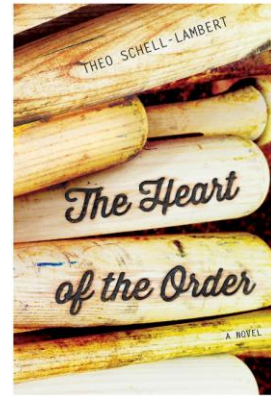
저자 : Theo Schell-Lambert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5년 6월 16일

분량 : 242 페이지

장르 : 소설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느긋한 휴식을 하게 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전하는 야구인의 삶

팀 동료들과 야구 팬들에게 ‘잔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블레이크 알렉산더는 미국 내셔널리그 사우스 소속 캐롤라이나 버드 팀에서 좌익수로 활약하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다. 6번 타자였던 그는 다소 위험한 슬라이드를 시도하다가, 무릎 인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만다. 5월 첫째 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실 잔디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배트로 공을 때리고 달려가면서 뭔가가 어긋났음을 직감했다. 첫 발을 때는 순간부터 찾아온 이 이상한 기분은 역시나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5월에 터진 사고였으니 남은 시즌은 물 건너간 셈이었다.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당시 경기 장면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잔디는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낀다. 팀 담당의사가 쓰러진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경기장 곳곳에 서 있던 선수들이 잠시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서 있는 모습. 구조대가 도착하고 자신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장면. 그 순간을 놓칠세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 그렇게 병원으로 직행한 잔디는 꼬박 40시간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다. 온갖 의학 전문가들과 팀 관계자들이 모여 고심을 거듭했고, 잔디는 그저 결론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마음 졸인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퇴원해도 좋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찢어진 정도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도 내려졌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던 계절, 잔디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어느 집을 빌려 재활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그곳에서 3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잔디는 무릎에 장치를 심었다가 다시 풀고 다시 공 던지는 연습을 시작하기까지 회복 과정을 매일 꼼꼼하게 기록한다. 매일 밤 투구 연습을 하기 전에 테라스에서 자신의 글러브와 맞바꾼 에이서 노트북을 펼치고는 조용히 앉아 이런저런 글을 끄적거린다. ‘테라스 시간’으로 이름 붙인 이 시간은 홀로 건넌 투병과 재활의 기록이기도 하고, 야구 선수로 살면서 뇌리에 박힌 잊을 수 없는 야구 경기들을 회상하는 기록이 되기도 한다.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패 행진에 괴로웠던 나날들, 무작위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까지 하나하나 소박한 기록으로 정리된다.

경기장을 벗어나 아름다운 해안가 집에서 되짚어보는 삶의 기억들, 야구를 향한 열정

바로 앞에 펼쳐진 플로리다 해안에 가끔씩 등장하는 악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며, 젠더는 재활을 돕고 있는 치료사 젠과의 소소한 대화들을 전하기도 하고 선수들의 스테로이드 남용에 관한 그의 소신 있는 생각을 밝히기도 한다. 1년에 1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생활도 같은 선수의 시선에서 흥미롭게 전해진다. 특별한 갈등이나 줄거리는 없지만 젠더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와 동일한 시선으로 야구선수들의 전반적인 삶과 그가 치유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야구선수는 자신이 출전한 경기를 통해 살아간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젠더의 고백처럼, 비록 재활 중인 지금은 현장에서 공을 던지고 받으며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일종의 의식을 치르듯 그는 지난 경기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되짚으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나간다.

‘센터 포 픽션 데뷔소설상(Center for Fiction First Novel Prize) 후보에 올랐으며, <Electric Literature>에서 올 여름 읽을만한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된 작품이다.

<저자 소개>

테오 셸 램버트(Theo Schell-Lambert)는 뉴올리언즈에서 소설, 비평, 수필을 쓰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NON-FICTION

제목 : VENDETTA

가제 : 피의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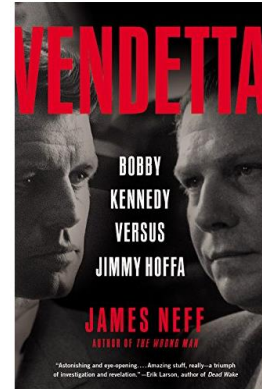
저자 : James Neff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역사, 정치



로버트 케네디와 미국 최대 노동조합 지도자 지미 호파, 10여년간 이어진 두 거물의 치열한 갈등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으로 정치인이자 법조계에 몸담았던 인물 로버트 케네디와 노동조합의 대표였던 지미 호파. 이 두 거물이 서로를 몰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벌인 싸움, 그 생생한 이야기가 미국 최고의 사건 조사 전문 보도기자로 인정 받고 있는 저자를 통해 새롭게 정리됐다. 로버트 케네디와 지미 호파는 1957년부터 1964년까지 각자가 지닌 권력을 거의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일에 몰두했다. 결국 호파에게 유죄가 선고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은 전쟁과 다름 없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57년, 상원 조직범죄 조사위원회 공청회장에서였다. 당시 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로버트 케네디는 새롭게 추진할 만한 조사 대상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 시기, 지미 호파는 특유의 친화력과 강압적인 방식을 활용하며 ‘전미 트럭운전자조합’ 내에서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노동조합은 마피아와 연관된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검사, 언론, 다른 노동조합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일은 로버트 케네디의 레이더망에도 포착되었고, 그는 노동계의 조직적인 범죄에 관한 공청회를 열자고 상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키워가던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금이 갈라지고 갈등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로버트 케네디는 ‘호파 잡기’ 특별팀까지 만들어 단 한 사람을 잡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화물운송 노조의 지도자로 선출된 호파 역시 그저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르지 않는 자금 줄을 아낌없이 활용하며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맞섰다. 각자가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생태계 속에서, 결국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법정에서 맞부딪힌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져 간다.

이중첩자, 배심원 매수, 조직 폭력배 동원도 불사했던 싸움, 호파가 가담했거나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되는 로버트의 형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까지, 저자는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방대한 자료들과 당시 이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혔던 두 남자의 치열한 삶과 갈등을 들려준다.

<목차>

- 1장. 눈이 멀다
- 2장. 인생은 정글이다
- 3장. 정치 중심가로 뛰어들다
- 4장. 운 좋은 녀석
- 5장. 첫 번째 대결
- 6장. 대통령과 지미 호파
- 7장. 마피아 비밀회의
- 8장. 압박 수위를 유지하라
- 9장. 가망성은 밝다
- 10장. 주요 반대의견
- 11장. 닉슨의 호의
- 12장. ‘호파 잡기’ 특별단
- 13장. 철면피 같은 여자
- 14장. 밀고자를 심다
- 15장. 집안 문제
- 16장. 배심원 앞으로

<저자 소개>

제임스 네프(James Neff)는 <시애틀 타임스>에서 사건조사 담당 편집자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Wrong Man》 등이 있다.

제목 : THE EVERY DAY MBA

가제 : 매일 실천하는 MBA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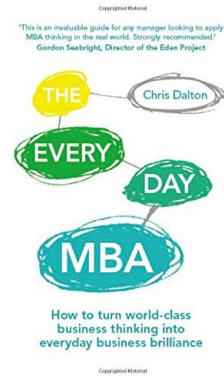
저자 : Chris Dalton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5년 2월 16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경영



전 세계 경영진들이 몰려드는 MBA의 차별성과 특징 그 핵심을 짚어내어 알려주는 경영지침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값비싼 등록금이나 엄청난 시간 투자 없이도 얻을 수 있다면? 저자는 경영대학원들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토대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안내한다.

매년 전 세계 수만 명의 회사 경영진들이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려고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수업 받고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책 한 권에 담아낼 수는 없지만, 최고로 꼽히는 경영대학원에서 강조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저자는 그 핵심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한다.

- MBA에서 얻는 가장 큰 결과물이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성과는 바로 ‘생각의 변화’이다.
- 행동 변화, 보다 나은 의사결정, 지속적인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토대가 된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두 가지 핵심을 토대로, 저자는 MBA가 다른 경영수업이나 리더십 프로그램과 달리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책의 각 장에 바로 그 요소들을 담았다. 저자가 제시하는 MBA의 첫 번째 특징은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적인 지식과 순수 학문의 특징인 엄격하고 진지한 탐구가 하나로 결합될 때, 훨씬 강력한 해답이 도출될 수 있다. MBA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지식을 현명하게 모으는데 집중한다. 업무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경영 일선에 갓 뛰어든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 맞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MBA의 두 번째 특징은 해묵은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처음 관리와 경영 업무를 시작한 시기나 조금 더 승진한 시점까지는 특정한 기법이나 기술에 기대어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던 그 기술 혹은 개개인의 업무 습관도 상급 레벨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이상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오래된 습관으로 자리잡아 스스로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뿌리깊은 인식들이 바로 그러한 장애물의 사례이다. MBA에서는 이렇게 정체기에 접어든 고위 관리자들이 이 상태를 깨우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MBA의 세 번째 특징은 고위 관리직, 리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선별하여 가르친다는 점이다. 산업 현장은 거의 50년 단위로 급변하고 있고, 경영대학원이라고 해서 경영의 머나먼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는 없다. MBA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포착하고, 불확실성과 큰 변화 속에서도 리더로서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주목한다. MBA의 특징과 이점을 살려 유용한 도구와 요령, 통찰, 풍부한 사례 연구, 노하우가 집약된 경영 지침서로, 어려운 경영 현장과 각종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1부.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1장. 경영과 MBA

2장. 개개인의 인적 개발

2부. MBA 식 실용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3장. 절차와 운영

4장. 사람

5장. 재무1: 회계

3부. MBA 식 전략: 큰 그림을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6장. 마케팅

7장. 전략

8장. 재무 2: 기업 자본과 경영구조

9장. 글로벌, 국제 경영

4부. MBA 식 비판적 사고: 경영 전략을 마스터하는 방법

10장. 리더십

11장. 기업의 명성,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12장. 반성적 사고: 날날이 밝혀진 경영의 실체

<저자 소개>

크리스 달튼(Chris Dalton)은 랭카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영국 헨리 경영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23년 이상 자기계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에 힘써 왔다.

제목 : AN ANATOMY OF ADDICTION

가제 : 중독의 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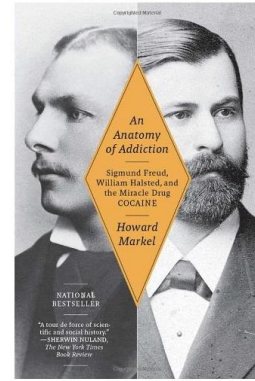
저자 : Howard Markel

출판사: Vintage

발행일: 2012년 7월 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의학, 역사



1880년대 의학계의 젊고 유망한 학자 프로이트와 홀스테드, 코카인 중독이 그들에게 남긴 것

젊고 야망 넘치던 신경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나 젊고 개척 정신이 뛰어났던 외과의사 윌리엄 홀스테드. 유럽과 미국, 각기 다른 대륙에서 유망한 학자로 인정 받은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당시 신비의 약으로 알려졌던 코카인을 수년간 사용하고 중독에 시달렸다는 것. 두 사람이 극심한 코카인 중독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신체적, 정서적 손상과 그 마약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마약 ‘덕분’인지도 모를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코카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사람이 한 명은 심리분석의 아버지로, 다른 한 명은 현대 외과수술의 선구자로 자리하게 된 기막힌 운명이 이 책에 담겨 있다.

1880년대, 프로이트는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홀스테드는 뉴욕 벨뷰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프로이트는 코카인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모르핀 과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그는 코카인을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울증 치료제로도 가능성이 엿보이던 참이었다. 한편 이미 명망 있는 외과의사로 유명하던 홀스테드는 코카인의 마취 효능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효능에 관한 이론을 증명해 보이려고 자신의 팔에 직접 코카인을 주사했다. 그 시기만 해도 프로이트나 홀스테드 모두, 그리고 두 사람의 주변 동료들 중 누구도 이 무서운 물질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위험에 빠뜨릴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중독’이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도 않던 시기였고,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의학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중독의 무서움은 누구도 잘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다.

의학 역사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프로이트와 홀스테드 두 사람이 각각 코카인을 만나면서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프로이트가 맨 처음 코카인을 접한 것은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코카인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이어 각종 통증과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 마법의 약을 몇 달간 사용한 후, 프로이트는 코카인에 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했는데, 바로 이 논문이 프로이트를 뇌 해부학을 공부하던 학자에서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는 학자로 바꾸어놓는 계기가 된다. 홀스테드는 당시 새로 설립된 존스홉킨스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발탁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코카인 중독은 스스로 통

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를 누구보다 잘 인지했던 그는 직접 정신병원에 수 차례 들어가는 결단까지 내리며 어떻게든 중독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와중에 현대 외과수술 기술의 핵심이 된 기술들, 의학이 인체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수술 의사의 철저한 손 위생, 손을 문질러 씻어야 한다는 수칙, 의사와 간호사의 흰색 가운 착용, 수술실의 멸균과 수술용 장갑 개발 등 수많은 업적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가 확립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의학계에서 영웅과 같은 성과를 남긴 두 사람의 천재적 의사가 한창 활약하던 시점에 코카인이라는 비극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목차>

- 1장. 젊은 날의 프로이트
- 2장. 젊은 날의 홀스테드
- 3장. ‘최고의 코카인’
- 4장. 중독자의 죽음
- 5장. 우연한 중독
- 6장. 코카인의 저주
- 7장. 파리로 간 지그문트
- 8장. 재활시설에 들어간 홀스테드
- 9장. ‘꿈의 해석’
- 10장. 교수
- 11장. 프로이트 박사의 ‘코카 코다(Coca Coda)’
- 12장. 잊혀진 홀스테드 박사

<저자 소개>

하워드 마켈(Howard Markel)은 미시건 대학교에서 의학 역사, 소아과학, 전염성 질환, 건강관리 및 정책학 교수를 맡고 있다. 국립 의학연구소로부터 연구 업적과 성과를 인정 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LIFE AND DEATH IN THE ANDES

가제: 안데스 산맥의 삶과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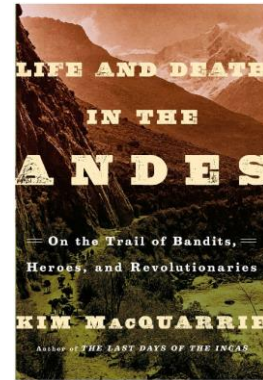
저자: Kim MacQuarrie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분량: 544 페이지

장르: 역사



찰스 다윈, 체 게바라, 구즈만… 안데스 산맥을 따라 탄생한 무법자들, 영웅들, 혁명의 기록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남미 대륙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관통한다. 에미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저자는 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 이동하면서, 특색 넘치는 각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 사건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들려준다. 찰스 다윈, 파블로 에스코바르, 체 게바라 등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티티카카 호수에 동동 떠 있는 섬들에 살며 오직 섬에서 나는 갈대에만 모든 생활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고유 언어를 할 줄 아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버린 파타고니아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 다양한 삶들을 통해 안데스 산맥 곳곳에 형성된 원시 문화가 현재 얼마나 사라졌는지, 일부는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전한다. 더불어 저자가 여행길에서 만난 이 지역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목격담이나 경험담도 전해진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볼리비아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부치 캐시디를 직접 만났다고 전한 남자, 페루에서 잔혹한 좌익 게릴라 조직으로 알려진 ‘샤이닝 패스’의 우두머리를 숨겨줬다는 어느 발레 무용가, 체 게바라에게 생애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다는 학교 교사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낸다.

저자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접하면서 마음 속에 자연스레 자리한 궁금증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남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맨 처음 어디에서 왔을까? 그들이 형성한 문화는 직접 만든 것인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 남미 대륙에 다른 어느 대륙과도 같지 않은 개성과 특성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안데스 산맥 지역의 문화가 다른 남미 지역 문화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페루의 게릴라 조직 ‘샤이닝 패스’ 지도자인 구즈만은 자신이 추구하던 혁명을 거의 성공할 수 있었는데, 볼리비아의 체 게바라는 왜 그토록 이른 시기에 실패했을까? 찰스 다윈은 남미에서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에 큰 충격을 받아 진화 이론의 뿌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저자의 깊은 통찰력과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남미 지역을 가로지르는 안데스 산맥에서 살았던 전설적인 인물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1. 파블로 에스코바르 사냥, 엘도라도 수색 (콜롬비아)
2. 갈라파고스에서 시작된 진화, 그리고 거부 (에콰도르)
3. 안데스 산맥의 죽음: 페루 ‘샤이닝 패스’의 우두머리, 아비마엘 구즈만 생포 (페루)
4. 하이럼 빙엄의 흥망성쇠, 마추피추 발견을 둘러싼 논란 (페루)
5. ‘빙하에서 발견된 여자’, 화산, 잉카 문명 (페루)
6. 콘티키 호의 항해, ‘하얀 신’, 티티카카 호수의 섬들 (페루, 볼리비아)
7. 체 게바라의 마지막 (볼리비아)
8. 부시 캐시디의 마지막 나날들 (볼리비아)
9. 다윈, 마지막 남은 야간(Yaghan)족, 지구 최극단 지역 (칠레, 아르헨티나)

<저자 소개>

김 맥쿼리(Kim MacQuarrie)는 에미상을 네 차례 수상한 영화 감독이자 작가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페루를 비롯해 아마존 밀림, 마추피추 지역 등 전 세계를 방문했다. 《Adventures in the Andes》, 《The Last Days of the Incas》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BODYWISE

가제 : 인체의 지혜

저자 : Rachel Carlton Abrams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건강



인체가 보내는 메시지, 그 지혜에 집중하여 현대 여성들의 고질적인 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가족, 직장, 친구, 사회적 활동까지, 현대 사회를 사는 여성들은 가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수많은 헌신과 책임에 눌리고 쫓기며 살아간다. 정통 서양의학을 공부했지만 통합의학에 중점을 두고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자는 환자의 증상과 전반적인 상태를 그들 각자가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해온 그 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접근방식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피로, 불안, 불면증, 만성 통증, 알레르기 등 인체의 만성적인 ‘결핍’에서 오는 공통 증상들이 모두 여성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요구와 쉴 틈 없는 일상 때문이며, 인체의 타고난 지능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레 여러 증상에서 벗어나고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전하는 핵심이다.

통합의학 분야에서는 환자가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각종 분석검사 결과와 식생활 변화, 처방약을 바탕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10분도 채 되지 않는 의사의 진료 시간에 과연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의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자가 만난 다양한 의료보건 전문가들의 접근법들을 종합하여 여성들 각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에 핵심이 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그 첫 번째는 ‘만성 인체 결핍’으로,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의 원인과 해결책이 하나하나 제시된다. 두 번째는 지능지수(IQ)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개념인 ‘인체 지수(BQ)’이다. 만성 인체 결핍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건강의 기본 토대인 식생활, 수면, 운동, 사랑, 목적이 있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 번째는 ‘몸’에 중심을 둔 생활 습관이다. 저자는 28일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각자의 BQ를 적극 활용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여성들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보내는 신호, 가장 현명한 그 목소리에 집중하여 삶을 재정비하고, 균형을 찾고, 생기 있게 생활하고, 건강을 최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건강서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내 몸은 나만이 치유할 수 있다

1부. 만성 인체 결핍 이겨내기

1장. 알람 좀 꺼 줘요, 피로 끝내기

2장. 눈이 말뚱말뚱, 불면증 끝내기

3장.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나, 만성 통증 끝내기

4장. 아, 나의 성욕은 대체 다 어디로 갔나? 열정 회복하기

5장. 늘 온라인에 접속한 생활, 너무 피곤하다, 불안감과 우울증 해소하기

6장. 내가 나를 공격한다고? 알레르기과 자가면역 질환 해소하기

2부. 몸의 지혜를 활용하여 내 삶을 치유하자

7장. 식생활: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인체 영양소 공급

8장. 수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에너지를 채우자

9장. 운동: 피트니스, 유연성, 몸을 튼튼하게

10장. 사랑: 우정, 열정, 마음을 건강하게

11장. 목적: 의미를 찾고 생활하기

12장. 인체의 지혜를 아는 여성들의 여섯 가지 성형

인체의 지혜를 위한 28일 실천 계획

<저자 소개>

레이첼 칼튼 에이브람스(Rachel Carlton Abrams)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샌 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산타크루즈 통합의료 & 카이로프랙틱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제목 : THE ART OF ILLUSTRATED MAPS

가제 :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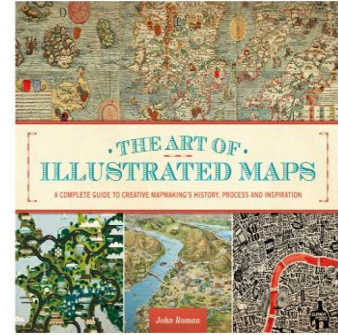
저자 : John Roman

출판사: HOW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16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예술



정밀하게만 그린 지도가 아닌, 작가의 감정과 창의력이 더해진 개성 넘치는 지도의 세계와 역사

정확한 사실이 생명인 논픽션에 창의력이라는 요소가 섞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개인의 감정이나 즉석에서 떠오른 영감은 배제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전하되, 그 방법에 개성을 담는 방식.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는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도 제작은 수많은 정보를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고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낙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는 자로 잰 듯한 기술적이고 딱딱한 지도와 달리 화가의 스타일, 개성 있는 기법을 담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광고와 출판 업계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는 전문적인 지도와 나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떠올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지도가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일러스트레이션 지도가 등장하여 지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고대에는 지도가 세상을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가장 귀중한 도구였고, 최초의 지도는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오늘날의 전문적인 지도와 굉장히 거리가 먼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수학이 지도 제작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고대 방식을 이은 개념적 지도를 제작해 왔다. 똑같은 지리적 정보를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에 주력한 것이다. 현실을 수학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는 대신 개성과 창의성을 담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를 그린 예술가들의 한결 같은 목적이었다. 이러한 지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예술가가 그 속에 담아낸 세상에 대한 감정을 함께 느끼며 지도상의 표현된 그 특정한 장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정신적 추상 기법에서 나온 결과로,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는 한 장소의 사실적 특성을 그 장소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오로지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픽션의 세계, 정확성과 사실성이 열쇠인 논픽션의 세계, 그 사이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지도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책이다.

<목차>

- 1부. 돌아보다: 일러스트레이션 지도의 기원을 찾아
- 2부.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지도를 보는 사람, 예술가, 그리고 마음
- 3부. 일러스트레이션 지도의 창의적 제작 과정
- 4부.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들
- 결론. 내다보다: 일러스트레이션 지도의 미래

<저자 소개>

존 로만(John Roman)은 보스턴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제작자로, 20년 이상 일러스트레이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50 Markets of Illustration》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